

##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운영팀에서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성과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스트레스 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향, 명상, 미술, 원예, 신체이완 등 체험형 프로그램 ▲색채 심리와 마음 챙김, MBTI와 스트레스 관리 등 워크숍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8월 8일 직원들이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지나호 정답



제753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꿈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감사우체통 - 따뜻한 위로와 마주 잡은 두 손'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간호1팀 이수현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9월 1일(월)

발표 제757호(2025년 9월 15일 발간)

##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대룡(진단검사의학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안지윤(임상시험센터)

조해정(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수환(영상의학팀)

변수영(수술간호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강미영(심장병원간호팀)

장선영(암병원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배서영(수술간호팀)

이정미(내과간호1팀)

이정호(자재팀)

정수지(심장병원)

조미영(영상의학팀)



#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55 2025. 8. 15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함께 이겨냈어요”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이를 정도로 더웠던 올여름. 띄약별 아래 보호구, 가운, 헬멧을 착용하고 일하다

보면 비 오듯 흐르는 땀에 옷이 금세 젖는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환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든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직원들이 있다. 우리 병원은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냉풍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원한 음료를 상시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힘을 보탤다.

누구보다 뜨겁게 여름을 보내는 직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응급실 앞에서 4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내원객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응급간호팀 이미현 대리, 박서현 과장, 서관 지하 1층 환자식 주방에서 식기 세척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영양팀 최미숙 선임기술, 동관 앞에 설치된 실외온도 측정기를 점검하고 있는 시설팀 박형구·차정본 선임기사, 신관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현대C&R(협력업체) 김태욱·김성곤 직원.

02 NEWS 희귀질환 다학제 진단 모델 개발

06 AMC 광장 우리는 환자의 '경험'으로 성장합니다

08 AMC 리얼스토리 매일의 고비에도 아이는 자란다

18 감사우체통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을 위로



서울아산병원 뉴스를  
병원 소식을 한눈에

## 희귀질환 다학제 진단 모델 개발



이범희 교수

희귀 유전질환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단 방랑’을 막기 위해 소아청소년전문과 이범희 교수팀이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희귀 유전질환 다학제 진단 모델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환자 4명 중 1명이 2개월 내 빠른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기반해 의사, 유전학자, 유전 상담사, 생물학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진단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이 안에는 가족 단위 분석, 진단 전후 유전 상담, 후속 임상 개입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병원을 포함한 국내 8개

의료기관에서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희귀 유전질환 환자 387명과 가족 514명을 대상으로 진단 모델을 적용했다. 그 결과 참여 환자의 27%(104명)가 2개월 이내에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 환자 중 77.9%는 DNA 염기 한 글자가 바뀐 변이이거나 염기 일부가 삽입 혹은 삭제된 변이로 밝혀졌다. 40.7%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변이였고, 37.3%는 부모에게는 없지만 환자에게 새로 발생한 변이었다. 연구팀은 유전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150명에게 약물 치료, 장기이식, 가족계획 상담 등 임상 개입을 진행했고, 이 중 68명의 환자에게 전문 유전 상담을 제공했다. 이범희 교수는 “이번 진단 모델을 통해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나 환자 단독 검사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환자군에서 새로운 유전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 및 중개의학』에 최근 게재됐다.

## 로봇 간 절제술 100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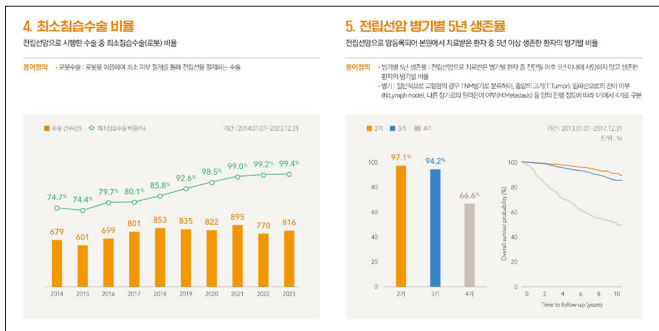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부교수(오른쪽)가 로봇 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부교수팀이 간암과 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 간 절제술 100례를 최근 달성했다.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룬 성과다. 간은 혈관이 많고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해 절제 시 출혈 위험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만일의 대량 출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로봇보다는 주로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이 진행돼 왔다. 김 부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의 2차원 간 영상을 3차원으로 변환해 환자마다 다른 담관, 혈관, 간문 구조를 보면서 안전하게 로봇 간 절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인도시아닌그린(ICG) 형광 영상을 로봇 간 절제술에 적용했다. 간문맥이나 분절 혈관을 차단한 뒤 ICG를 정맥 주사하면 혈류가 공급된 간 조직은 녹색으로, 혈류가 차단된 구역은 형광색을 띠지 않는다. 경계가 명확히 구분돼 혈관과 담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절제가 가능하다. 로봇 간 절제술은 상처와 통증, 출혈이 적다.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도 크다. 실제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평균 4~6일로 개복 수술(평균 2주), 복강경 수술(평균 1주)보다 짧았다. 김 부교수는 “로봇 간 절제도 보조적인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만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암종별 치료 성과 ‘아웃컴즈북’ 발간



우리 병원의 암종별 치료 성과를 담은 ‘아웃컴즈북’이 최근 발간됐다. 이번 아웃컴즈북에는 비뇨기암 중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의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 건수, 병기별 5년 생존율, 최소 침습 수술 비율 등 양적, 질적 지표가 담겼다. 아웃컴즈북은 지난해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총 14개 암센터의 치료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2028년부터는 암종별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아웃컴즈북부터는 수술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를 받은 0~4기 전 병기의 암환자 생존율이 포함됐다. 송시열 암병원장은 “암종별 치료 성과를 분석해 의료 질을 향상하고 환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신뢰도를 높ی겠다”고 말했다.

## 유전성·희귀 비뇨기암 클리닉 개소

부신암, 고환암, 요막관암 등과 같이 발병률이 낮거나 유전성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뇨기암은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 병원은 유전성 및 희귀 비뇨기암 환자의 정확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성·희귀 비뇨기암 클리닉을 최근 개설했다. 클리닉에서는 종양내과 박인근 부교수가 심층진료로 병력, 증상, 가족력, 비뇨기 외 질환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다. 필요 시 다학제 통합진료로 관련 의료진이 한자

리에 모여 항암, 수술, 방사선치료 등 최적의 치료법을 모색한다. 신체 전반에 반복적으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성 비뇨기암은 유전상담, 유전성 검사, 특수병리검사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진료 대상은 VHL 유전자 변이로 여러 장기에 종양이 생기는 VHL 증후군, FH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FH 결핍 신장암, 전 세계 연간 발병률이 백만 명당 약 0.5~6명인 부신암·갈색세포종·부신경절종·고환암·요막관암 등이다.

##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로 새 출발



제14회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에서 패널들이 심장내과 안정민 부교수팀의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실시간으로 보여 토론하고 있다.

제14회 서울심장판막시술 국제학술회의(SEOUL VALVES 2025)

가 8월 7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우리 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이번 학회는 올해부터 기존 ‘아시아 심장판막 및 구조 심질환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AP VALVES & STRUCTURAL HEART)’에서 명칭을 변경해 새 출발을 알렸다. 올해 학회에서는 순수 대동맥판 역류, 경피적 삼첨판 가장자리 접합술 등 고난도 심장판막시술 사례 등을 주제로 최신 치료법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라이브 케이스 세션에서는 우리 병원을 비롯한 중국과 대만, 홍콩의 주요 병원의 고난도 시술을 실시간 중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



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화기내과가 주최하는 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이 8월 1일부터 이틀간 동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일본, 대만의 소화기 분야 전문가들이 체담도와 상부위장관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심도 있게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악성 위출구·십이지장 폐색의 치료 전략 ▲십이지장 유두부 종양의 내시경 치료 ▲고령 환자의 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치료 ▲위식도역류질환(GERD)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울산의대 교원 정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정년식이 8월 4일 교육연구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정년식에서는 해부학교실 홍혜남 교수, 류마티스내과 유빈 교수,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 종양내과 김상위 교수, 신경과 이재홍 교수,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 비뇨의학과 김건석 교수, 가정의학과 조흥준·박혜순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공로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영석 의과대학장의 인사말과 공로패 전달식에 이어 채희동 의무부총장과 박승일 병원장의 축사, 정년 교수들의 퇴임사가 진행됐다.

## 외국인 이주민 의료봉사



8월 3일 진행된 의료봉사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진료 접수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이 8월 3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우리 병원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의료봉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8명의 직원이 참여해 용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외국인 이주민 46명에게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일반촬영검사, 투약 등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핵의학팀 이다연 사원은 “간호사로서 처음 참여한 의료봉사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찼다”고 말했다.

##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 경영진 방문



닉 호지스 존슨앤존슨 글로벌 부문 부사장, 윤덕현 CAR-T센터소장,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왼쪽 아홉 번째, 열 번째, 열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의 닉 호지스 글로벌 부문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8월 11일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존슨앤존슨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문단은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 윤덕현 CAR-T센터소장을 비롯해 암 분야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의료진을 만나 우리 병원의 임상시험 실적과 디지털 병리 시스템 등 첨단 연구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양 기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임상시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동 정

#### 김남국 교수팀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가 지도하는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MI2RL) 연구팀이 최근 투비닥터와 테일벤처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의료인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국 교수팀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검색증강생성(RAG), 에이전트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의료 판례를 검색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 제공하는 AI 법률 서비스를 개발해 이 상을 받았다.

#### 홍광표 조교수 우수비디오발표상



간담도체외과 홍광표 조교수가 최근 열린 제5차 국제복강경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복강경 간 S8 절제술에서 간열 접근법과 간문 접근법의 비교: 우측 전방 글리소니언 해부 구조에 따른 전략적 적용’을 주제로 우수비디오발표상을 받았다.

### 인 사

#### 보직임명

|               |    |     |          |
|---------------|----|-----|----------|
| 가정의학과         | 교수 | 손기영 | 임: IDP팀장 |
| - 2025. 7.15부 |    |     |          |

### 이 달 의 후 원 자

|                |              |          |              |                                  |             |
|----------------|--------------|----------|--------------|----------------------------------|-------------|
| 개인 및 단체        |              | (주)현대이지웰 | 90,000,000원  | 임용빈                              | 1,000,000원  |
|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              | 최은정      | 3,000,000원   | 임재현                              | 100,000원    |
| 강신기            | 100,000,000원 | 허재명      | 100,000,000원 | 정운상                              | 150,000원    |
| 권영대            | 100,000,000원 | 홍석정      | 2,000,000원   | 정장현                              | 30,000,000원 |
| 김수연            | 50,000,000원  |          |              | (주)행복한씨엠오                        | 5,000,000원  |
| 김희태            | 20,000,000원  | 불우환자 지원  |              | 허김의진                             | 200,000원    |
| 박윤수            | 10,000,000원  | 김수연      | 50,000,000원  |                                  |             |
| 유한회사 시에나원      | 100,000,000원 | 김현숙      | 100,000원     | 직원 및 직원가족                        |             |
| 이봉현            | 100,000,000원 | 박원종      | 150,000원     |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             |
| 임채민            | 1,000,000원   | 박윤희      | 100,000,000원 | 유수덕                              | 11,000,000원 |
| 정재영            | 1,000,000원   | 안현수      | 150,000원     |                                  |             |
| 정진규            | 100,000,000원 | 엄혜정      | 5,000,000원   |                                  |             |
| (주)에스엠아이이엔지    | 50,000,000원  | 이정일      | 1,000,000원   |                                  |             |
|                |              |          |              | - 2025년 7월 31일 기준, 가나다순          |             |
|                |              |          |              |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             |

## 우리는 환자의 ‘경험’으로 성장합니다



이제환 진료부원장·환자경험위원회 위원장

몇 해 전, 한 퇴원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카드를 받은 적이 있다.

“입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살피고, 걱정하는 보호자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나는 카드를 보고 생각이 많아졌다. 특별한 말이나 거창한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었다. 회진 중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새 고생 많으셨죠?” 같은 짧은 인사를 건넨 것이 전부였다. 그 몇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감정과 기억을 ‘환자경험’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년마다 전국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6월부터 12월 사이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모바일 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진료와 간호, 투약 및 치료 과정, 정서적 지지, 병원 환경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이 제도는 환자나 전 진료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의 질 향상이다.

환자에게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병원이 환자를 위해 어떤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환자경험은 병원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담은 지표다. 환자들은 입원 중 병원에서 받은 서비스를 분리해 기억하지 않는다. 예약부터 외래 진료실, 병동, 검사실, 원무, 보안, 부대 시설까지 병원을 ‘하나의 팀’으로 인식하며 전체적인 경험을 기억한다. 특정 시점의 이벤트가 아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순간순간의 축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진료실, 병실, 복도, 대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과 좋은 경험이 쌓여 ‘이 병원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기억으로 남는다.

우리의 말 한 마디, 눈빛, 태도, 대기 공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병원의 얼굴이 된다. 이제 병원의 질은 의학적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설명과 정중한 응대, 존중의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환자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이번 평가의 응답자는 환자이지만, 그 결과는 병원 전체 구성원이 져야 할 몫이다. 병원은 단지 치료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공간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환자의 기억이 되고, 병원의 가치가 될 것이다.

“나는 오늘 환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자. 그 질문 하나가 우리가 함께 만드는 환자경험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중증 신경 질환 간호에 전문성을 더하다

내과간호2팀 손다혜 대리는 최근 중증 신경계 번역질환 간호 분야의 국제자격증 2개를 동시에 취득했다. 다발성경화증 국제간호인증위원회(MSNICB)의 MSCN과 다발성경화증센터협의체(CMSC)의 CRND 인증이 바로 그것이다. 간호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학업을 병행하며 이룬 쉽지 않은 성과다. 손다혜 대리를 만나 그 도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실>



### 취득한 국제 자격증을 소개해달라

MSCN(Multiple Sclerosis Certified Nurse)은 다발성경화증 환자 간호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국제 자격으로 질병의 이해부터 약물 관리, 환자 교육과 상담 등 지식을 평가한다. 2년 이상의 다발성경화증 환자 간호 경험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CRND(Certification in Rare Neuroimmunologic Disorders)는 희귀 신경면역질환 전문 국제 자격이다. 횡단척수염, 시신경척수염, 시신경염 등 희귀한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증상 관리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자격이다.

관련 질환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있어 전문 간호 역량을 갖추면 더욱 질 높은 치료와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도전하게 된 계기는

신경과 병동 근무 초기에 접한 질환들은 대부분 생소했다. 특히 다발성경화증은 젊은 환자가 많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와 보호자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부족했고 특화

된 교육자료가 없어 환자를 상담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다.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23년 민병철 연수기금으로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을 방문했고, 현지 간호사의 소개로 MSCN 자격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자격시험 핸드북에 제시된 문헌과 신경학 서적을 바탕으로 평소 환자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며 모르는 개념이나 약물을 그때그때 찾아 보면서 정리해 나갔다. 특히 담당 교수님 회진에 참여하며 들은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CRND 자격도 알게 됐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 동시에 도전했고 1년여 동안 준비해 두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재와 시험 모두 영어로 구성돼 부담이 컸다. 하지만 시험 준비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상담 경험과 교재 내용을 연계하니 이해가 비교적 쉬웠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MSCN 시험은 한 차례 탈락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었다.

###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예전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면서 확신이 조금 부족했다. 지금은 환자에게 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환자와 보호자도 큰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느껴진다. 더 노력해서 환자 맞춤형 상담과 간호사 대상 교육,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정확한 정보는 환자가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더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고 믿는다. 더 많은 동료들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 매일의 고비에도 아이는 자란다

“정원이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생후 1개월 때 신경모세포종(소아암) 4기로 우리 병원에 전원한 친구인데요. 당시 종양이 간에 전이돼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어요. 오자마자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는데, 그런 정원이 무사히 퇴원해선 돌잔치도 했대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하하.”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고경남 교수는 정원의 소식에 활짝 웃었다. 어제의 아픔을 잊은 채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도, 반갑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원은 우리 부부가 5년간 애타게 기다려 얻은 아이입니다. 돌아보면 기다린 마음만 컸지,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는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의 배꼽이 조금 튀어나온 걸 처음 보고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

겼어요. 김진차 병원에 갔을 때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집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산부인과 진료가 있던 저는 뒤쫓아 가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 아빠에게서 언제 오나는 연락이 끊임없이 오더군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정원이 걸린 병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만 알았어요. 세상에 나온 지 34일 만에 암 선고라뇨.

진료실을 나오는데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이 뭘 줄 아세요? 젖먹살이 났다고 이틀 전부터 정원을 안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지 않고요. 중환자실에 아이를 놓고 나올 땐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4일째 되던 날에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결정이 났고, 살짝 불룩했던 정원의 배는 그 사이에 터질 듯 부풀어 있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의정갈등이 한창인 때라 정말 불안했어요. ‘우리 아이를 받아줄 의료진이 없으면 어떡하지?’

★  
다행히 우리는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항암 치료가 진행됐어요. 아이 몸에는 투석기와 인공호흡기 등이 가득 달렸죠. 매일 아침 30분. 아이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인천에서 2시간을 달려왔어요. 아이 상태가 나빠져 빨리 와야 할 것 같다는 연락도 여러 번 받았죠. 02로 시작하는 전화만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급기야 이게 꿈은 아닐까, 악몽에서 깨어나면 옆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 아닐까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여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걸까?”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마음까지 챙겨야 했어요. 혼자 몰래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끊었던 담배를 다시 손대는 건 아닌지 그 모든 신호에 노심초사하면서요. “우리 아가가 천사라서 빨리 데려가려고 하나 봐.” 마음의 준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상 세포와 암세포가 구분 안 될 정도로 정원의 간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피부색도 달라지고 보드라운 말랑거림도 사라졌어요. 온몸에 발진이 올라왔을 때는 의료진까지 놀라게 했죠. 항암치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중단하고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교수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두가 이렇게 애쓰는데 매일 고비를 만나니가 울음을 멈출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얇은 붕대로 침대에 손을 결박시킨 걸 봤어요. 작은 손에 쥐여준 거즈를 아이가 꼭 쥐고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 아이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한 내 새끼.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지’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모든 신에게 기도했어요. 종교대통합(?)이라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떼도 소원이 없겠다’는 입버릇이 현실로 이뤄지고, 종양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됐을 때 의료진분들은 못내 미안해하셨죠. 더 위중한 환자가 있어서 그나마 상태가 나은 정원이 병실로 가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원의 상태가 가장 좋다는 한 마디에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꼭 1등 했다는 말처럼 우쭐해지고요. 부모가 되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병실에선 다시는 아이를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늘 안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팔베개를 해줘야 잠드는 습관을 들였지만 마음껏 안고 싶은 제 욕심은 원 없이 이뤘습니다. 금식부터 시작해 5ml씩 분유를 늘려가는데 그마저도 속을 게을 때가 많았어요. 다시 신생아가 된 것처럼 2시간 간격으로 먹이

는데, 6인실에선 쫓꼭지 소독하랴 시간 맞춰 먹이라 녹록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한 간호사 선생님이 퇴근 후 시간이 남는다면 병실을 찾아 주셨어요. 정원을 보고 있을 테니 열른 식사하고 숨 좀 돌리고 오라며 제 등을 떠미셨죠. 어리둥절한 상태로 병실을 나선 순간, 정원이 엄마라는 역할에서 빠져나와 저 자신을 잠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맘속에선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일요일에도 정원을 보러 오셨죠.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 쉬세요?” 물었던 것 기억하세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잇는 법이 없으셨어요.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더니 정원은 온 병동 사람들이 키웠네요. 힘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기 마련이지만, 그때의 고마움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작년 6월 21일 정원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저희와 지내며 첫돌도 맞이했고요. 요즘 시대에 돌이 유난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원은 워낙 힘겨운 한 해를 보냈기에 100여 명을 초대했어요. 솔직히 저희 결혼식보다 더 잔치 같았어요. 아이를 키우며 감성이 무력무력 자란 남편은 편지를 낭독하며 참석한 모두를 울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쁜 눈물이어서 다행이었어요! 돌상에서 실을 잡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정원은 기어코 마이크를 잡더군요. 너무 화려한 마이크를 준비한 탓이라며 아쉬워 했는데, 문화센터에 가면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는 걸 보니 정원이 선택한 운명인가 봅니다. 정원의 수많은 선택과 꿈들을 지켜보게 될 앞으로가 조금 떨리고 기대도 됩니다. 또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우리 가족의 힘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교수님이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교수님은 진료실에서 저희 같은 가정에 단단한 행복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계시겠죠? 의료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실에서 뵈겠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영상의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튀르키예에서 온  
피겐 팔라바릭 임상강사



저는 현재 튀르키예의 하미디예 보건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 튀르키예에서 소아외과 전문의로 10년, 소아영상의학 전문의로 11년 근무했어요. 지금은 서울아산병원 영상학과에서 소아영상의학에 대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소아뇌종양, 신경섬유종증, 모야모야병 등의 영상 검사 결과에 대해 매일 아침 지도교수님인 정아영 교수님과 리뷰하는데, 영상의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저를 성장시키는 시간인 것 같아 행복합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참석 #미로 같은 코엑스

서울아산병원 연수가 마치 운명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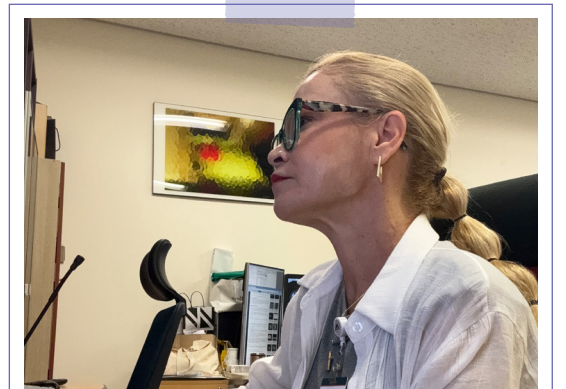
어느 날 불현듯 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 의료진과 직접 교류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 인터넷으로 ‘한국 소아영상의학’을 검색했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봐 한국이 친숙하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서울아산병원이 바로 검색되더라고요. 소아종양, 소아장기이식 분야에서 의 매우 뛰어난 성과와 함께 말이죠. 주저 없이 소아영상의학의료진을 검색했고 정아영 교수님께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은 흔쾌히 연수 과정에 대해 알려줬고, 마치 운명처럼 순조롭게 서울아산병원으로 올 수 있었어요.

세계적 수준의 임상 성과만큼  
영상의학 분야 역시 발전돼 있었어요.

임상 성과는 영상의학 분야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서울아산병원은 임상 성과만큼이나 최고의 영상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연히 검사 영상의 질도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발전된 MRI 검사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소아신경 분야 유전 질환 환자에게 두정부 외에도 전신 MRI 검사를 실시하더라고요. 튀르키예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환자를 위해 더욱 정밀하고 예방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연등회에서 #불교행사 #새로운 경험



#아침 리뷰, 성공적

미뤄왔던 유전학 박사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병원 내 소아영상의학과와 의학유전학센터가 협력해 유전학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튀르키예에서는 질환에 집중해 소아영상의학과에서 검사 결과를 평가하거든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돌아가면 유전 질환 협진 시스템을 꼭 도입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유전학 박사 학위 취득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꼭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 의료진과도 협력해 박사 과정 연구를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형제의 나라’ 한국에 온 이후 한국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반 한국인처럼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먼저 다가가면 다 마음을 열어준다고 느꼈어요.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한국의 진정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음식들도 먹어봤어요. 광장시장에서 먹은 부침개와 막걸리는 잊을 수 없어요. 아,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웃음) 한국에 사는 튀르키예 친구들이 “한국에서 한 번 살아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매력이 많은 나라라고 하면서요. 저 역시 언제든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소아영상의학과 교수님들과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시력은 정상인데 시야가 흐리다면 안구건조증?



안과 정호석 조교수



“눈이 뻑뻑해요.” “글자가 겹쳐 보여요.” “시력검사는 정상인데 잘 안 보여요.”

안과 외래에서 자주 듣는 환자들의 호소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인에게 이러한 증상은 흔하게 나타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생활습관 교정을 포함한 안구건조증 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은 습도 때문에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냉방기 사용이 많아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 눈물이 충분해도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2017년 안구건조증 워크숍에서는 안구건조증을 눈물막 항상성이 깨지고 안구표면에 염증과 신경감각 이상이 동반된 다인성 질환으로 정의했다. 눈물이 충분하더라도 눈물막이 쉽게 깨지거나 고르지 않게 분포하면 눈은 건조해지고 시야는 흐릿해지며 환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눈물막은 각막과 결막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항균 작용과 영양 공급은 물론 빛이 각막을 통과할 때의 굴절을 균일하게 만들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마치 울퉁불퉁한 유리를 통해 사물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흔들리고 빛이 번져 보이며 시력이 일정하지 않게 느껴진다. 눈부심에도 민감해진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닿아 눈물 증발이 빨라지고 눈물막이 불안정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환자들은 본인의 상태를 “난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검안을 해보면 난시 소견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다. 이는 ‘진성 난시’가 아니라 눈물막 이상에 의해 생기는 ‘가성 난시’로, 눈을 깜빡이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려지는 특징이 있다.

## 젊은 세대도 예외 없다

전통적인 위험인자인 고령, 여성, 폐경기, 비타민A 결핍, 자카면역질환에 더해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착용, 냉방으로 인한 건조한 실내 공기 등도 안구건조증의 유병률을 높이고 있다. 20~30대에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영상표시장치(VDT) 즉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응시하는 습관은 현대인의 눈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정상 30~50%까지 감소하고,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불완전한 깜빡임이 늘어나 눈물막 재분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20-20-20 룰’이다. 20분마다 20피트(약 6미터) 이상 떨어진 사물을 20초간 바라보라는 지침인데 이렇게 하면 눈의 조절근이 이완되고 깜빡임을 유도하여 눈물막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초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호전 가능하다

안구건조증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한다. 설문 평가 외에 눈물막 파괴시간, 눈물 오스몰농도, 안구표면 염색 점수, 눈물 염증표지자(MMP-9) 검사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초기에는 인공눈물, 온찜질, 눈꺼풀 위생, 실내 습도 유지 등 환경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호전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위치를 조절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 표면을 보호해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 또한 눈물막 안정에 도움이 된다. 증상이 지속되면 눈물점폐쇄술이나 항염증점안제(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등)를, 눈꺼풀 염증이 심해서 생긴 안구건조증의 경우는 IPL 레이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 시력은 숫자가 아니다

안구건조증은 단순 불편감을 넘어 시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된 젊은 층에서 ‘시력은 정상인데 잘 안 보인다’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눈물막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의 조정은 눈물막을 회복시키고 시야의 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과도한 냉방 기기 사용으로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계절에 따른 눈 건강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력은 숫자가 아닌 질이다. 수치로는 보이지 않지만, 환자가 분명히 느끼는 ‘불편한 시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디지털 시대, 그리고 무더운 계절 속에서 시야가 흐려졌다면 눈물막부터 다시 한번 살펴 봐야 한다.

##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 에크모 시뮬레이션 교육



어린이병원간호팀 박지혜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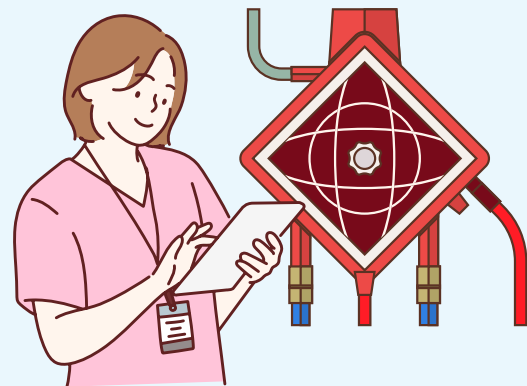
종양내과 병동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소아중환자실로 부서를 옮겼다. 바쁜 업무가 생소했는데 무엇보다 에크모(ECMO)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병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에크모 환자를 접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에크모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강했다.

교육은 사전학습 동영상 시청과 사전평가를 통해 에크모 기본 원리와 VA(정맥-동맥) / VV(정맥-정맥) 모드, 비상 상황 시 핸드 크랭크 사용법을 익힌 후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뮬레이션 실습에서는 먼저 실제 기계로 에크모 조작법을 배웠다. 기계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처방과 에크모 설정값을 비교해 보며 에크모 설정요소와 감시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에크모 기계 종류별로 핸드 크랭크를 직접 돌려봤다. 영상으로 보기에겐 쉬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교육을 받을수록 응급상황을 대비해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음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했던 에크모 적용 환자안전사례를 직접 경험해보고 에크모 탈관 상황에서 처치와 간호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에크모 환자 사례 시뮬레이션이 진행됐다. 에크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VA 모드, VV 모드 사례를 각각 실습했다. 각 조별로 조원들이 담당간호사, 의사, 기록자 역할을 맡아 환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에크모 전담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직후 이브닝 근무에서 에크모 환자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됐다.** 교육에서 배운 대로 에크모 설정요소를 확인했고 드레싱 부위를 관찰했다. 마침 에크모 캐놀라의 봉합 부분이 풀려있어 탈관을 예방하기 위해 봉합을 시행했다. **긴장됐지만 교육에서 여러 사례를 연습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됐고 무사히 첫 에크모 환자 간호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첫 에크모 환자를 담당하며 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실제로 에크모 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이 없어 두려움이 컸는데 교육을 통해 불안을 덜 수 있었다. 책이나 영상으로는 익히기 어려운 실제 기계 작동법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뀐 것이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에크모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에서는 국내·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101병동에서 간암, 담관암, 대장암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동인 만큼, 환자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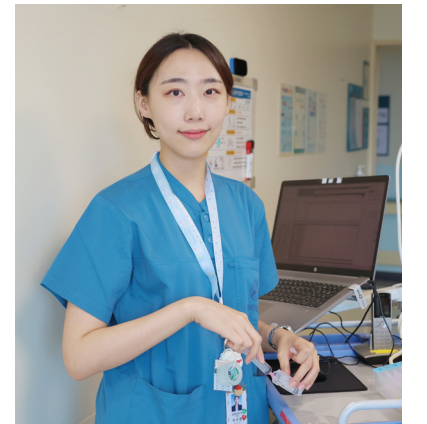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여러 환자를 동시에 간호하다 보니, 모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은데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헛갈릴 때마다 SOP를 찾아보며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한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퇴원할 때의 보람과 기쁨을 떠올리며, 오늘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대장암으로 대장 절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생활을 많이 걱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간호의 초점을 환자의 걱정을 덜어내는 것에 맞췄습니다. 수술 후 여정도를 활용해 앞으로의 회복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수술 잘 받고 곧 병동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밝게 인사도 건넸습니다. 수술이 잘 돼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수님 이야기를 전할 땐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지할 수 있어 고마웠으며 환자분이 저를 꼭 안아준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동료는** 101병동 모든 선생님에게 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먼저 물어봐 주고, 더 나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는 선배들이 저에게겐 영웅입니다(웃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동기들과 현장교육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업무를 함께하는 조무원님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늘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다 보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직하다고 평가받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암병원간호1팀 이수현 사원

## 끝없는 혼란을 이기는 다정함의 힘



운영지원팀 박서영 사원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예고편만으로는 도무지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영화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에 예매했지만, 막상 보는 내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주인공 에블린은 미국에서 작은 빨래방을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다. 그녀의 삶은 녹록지 않다. 빨래방은 세무 조사에 시달리고, 딸과의 갈등은 깊어지며, 남편은 지나치게 낙천적이다. 아버지조차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그녀 앞에 갑자기 다른 우주 ‘알파버스’에서 온 남편이 나타난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건넨다. “수많은 우주(멀티버스)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황당한 이야기라 여긴 에블린은 알파버스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신발을 거꾸로 신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다. 그러자 어느 순간 다른 우주로 ‘점핑’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수많은 멀티버스를 겪으며 다양한 삶을 사는 자신과 마주한다. 성공한 액션 배우, 유능한 요리사, 그리고 손가락이 소시지로 바뀌어 있는 자신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본 에블린은 깨닫는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에블린 중 자신이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점핑에 매료된다. 그러나 당장 ‘절대악’이라 불리는 인물과 맞서야 했다. 놀랍게도 그 인물은 다른 우주에서 온 자신의 딸이었다. 딸은 무한한 세계를 넘나들며 허무주의에 빠졌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블린은 오히려 딸을 다정히 감싸 안는다. 늘 낙천적이던 원래 세계의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준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는 더더욱 말이야.”

이 영화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힌트를 준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알파버스 남편이 현재의 에블린에게 건넨 말이었다. “당신이 해낼 수 있다고 봐. 모든 우주를 통틀어 무슨 선택을 하든 늘 최악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삶은 선택과 후회의 연속이다. 우리는 종종 ‘다시 돌아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자책하곤 한다. 영화 속 에블린은 두 우주의 남편이 말한 대로 다정함이라는 무기로 우주를 지켜내는데 성공한다. 가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주를 지킬 만큼 가장 강인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그런 에블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나 자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삶이 때로 허무하게 느껴져 잠시 흔들릴지라도, 스스로와 타인을 향한 다정함이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개봉 : 2022.10.12.

장르 : 액션, 코미디

감독 : 다니엘 관, 다니엘 셰이너트

출연 : 양자경, 스테파니 수, 키 호이 관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 일상에 스파이크!



심장검사팀 김영민 사원



### 배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를 보고 김연경 선수의 팬이 되면서 배구에 빠졌습니다. 배구는 경기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순간판단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긴장감이 넘치는 게 특징이죠.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를 따라 직접 해보니 재미가 두 배였습니다. 그 후로 1년 넘게 배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경기는

작년에 참가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배구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는데, 첫 정식 경기에서 운 좋게 동메달을 받았거든요! 그 날의 설렘과 성취감은 잊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다양한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서 메달도 수집해보고 싶어요.

### 배구를 시작한 이후 변화가 있다면

저는 MBTI가 I형 98%에 이를 정도로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팀 스포츠인 배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다 보니 조금씩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게다가 배구 덕분에 체력이 길러지고 퇴근 후 자연스레 운동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는 덤이구요! 원래 운동을 즐기지 않았는데 큰 발전이었죠.(웃음)

### 배구를 시작하려는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배구를 하려면 키가 커야 하지 않나?” “시작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배구 동호회만 해도 여성 기준 키 150cm부터 175cm,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뛰고 있어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배구만의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많은 동료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병원보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나의 취미생활’ 코너를 운영합니다. 취미활동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을 위로

오랜 입원 생활에서 얻은 것은 우울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랬습니다. ‘며칠 치료받으면 퇴원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가내와 확신은 퇴원 번복을 거듭하며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무표정한 얼굴, 줄어든 말수에 보호자인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소담 선생님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밝아서 좋다고. 입을 떼기 힘들어 대답도 잘 못하지만, 말 한 마디 따뜻하게 건네고 걱정해 주는 선생님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주고 밝게 웃어주는 간호사에게서 환자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제 엄마와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박소담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위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때로는 무뚝뚝한 표정, 건조한 말투를 가진 환자를 만납니다.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표정과 말투 뒤에는 불안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간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심 어린 관심’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원 전의 일상은 어땠는지, 퇴원 후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환자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 노력이 의미 있다는 생각에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과간호2팀 박소담 사원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 임상시험센터 임유지 연구코디네이터

‘웰컴 투 AMC’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들의 소식을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위암 환자가 적어 위암 수술법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고난도 수술 역량에 다시 한 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 내과간호2팀 양하은 주임

‘풍납동 사진관’에 소개된 144병동 선생님들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동과 가까워 평소 잦은 코드블루 방송에 마음이 쓰이곤 했거든요. 환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수술간호팀 김선경 주임

테니스, 러닝, 수영 등 야외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 ‘헬스에디터’ 코너의 온열질환에 대한 글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과간호2팀 최동혁 주임

‘컬처 & 라이프’ 코너가 인상 깊었습니다. 업무와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 평범한 하루를 ‘눈이 부시게’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 임상시험센터 안지윤 주임

‘감사우체통’ 코너가 가장 좋았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수술 전 불안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준 김수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환자를 향한 선생님의 태도를 보며 동료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 풍납동 사진관



### 깊은 밤, 병원을 지키는 사람들

화재와 지진, 사이버 테러... 디지털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두 깊이 잠든 새벽 3시, IT서비스팀은 초의 다운타임도 허용하지 않는 전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복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상황에도 환자를 위한 진료가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IT서비스팀 김윤홍 대리

※ ‘풍납동 사진관’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